페더러,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스포츠 선수 1위

▲ 로저 페더러. 사진=shutterstock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가 역사상 가장 존경 받는 선수 1위에 올랐다.

14일 'OSEN' 에 따르면 영국 '기브미스포츠' 는 이날 순위 평가사이트 '톱텐스' 를 인용해 모든 스포츠 종목을 총망라해 역사상 가장 존경 받는 스포츠 선수 톱 30을 발표했다.

1위에 오른 선수는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였다.

페더러는 1998년 데뷔한 이후 통산 103회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그랜드슬램 대회 우승만 20회(윔블던 8회, 호주오픈 6회, US오픈 5회, 프랑스오픈 1회)에 이르며 지금도 현역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2위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었다. 미국프로농구(NBA) 사상 최고 선수로 꼽히는 조던은 시카고 불스와 함께 6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전 스포츠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되고 있다.

복싱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3위를 차지했다. 알리는 2016년 향년 74세로 사망할 때까지 흑인 민권 운동에 몸담는 등 사회운동가로도 이름을 알렸다.

이어 베이브 루스(야구), 펠레(축구), 웨인 그레츠키(아이스하키), 데릭 지터(야구), 재키 로빈슨(야구), 도널드 브래드먼 경(크리켓), 페이튼 매닝(미식축구)이 각각 4위~10위에 올랐다.

이외 코비 브라이언트(농구, 14위), 카림 압둘-자바(농구, 18위), 우사인 볼트(육상, 20위), 샤킬 오닐(농구, 21위), 매직 존슨(농구, 27위), 스테판 커리(농구, 30위) 등이 3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우즈 "LIV 전향 선수들은 배신자"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가 LIV로 전향한 선수들을 맹비난했다.

13일 '마이나타임즈' 에 따르면 우즈는 전날 디 오픈을 앞두고 열린 가진 기자회견에서 작심한 듯 "LIV로 간 선수들은 '배신자' " 라고 말했다.

우즈는 "그들이 한 일은 그들이 이 위치에 오도록 해준 것에 등을 돌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며 "일부 선수들은 메이저 대회를 경험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그들은 아마추어 등급에서 바로 그 조직으로 갔고 투어 일정을 플레이하거나 일부 큰 이벤트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결코 경험하지 못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LIV 골프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국부 공공 투자 기금이 자금을 지원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돈으로 '스포츠 워싱' 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LIV 토너먼트는 54홀 노컷 이벤트로,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은 이벤트 종료 시 급여를 보장받는다. 우즈는 이에 대해서도 "54홀은 시니어 투어에서나 한다." 며 비판했다.

우즈는 또 LIV가 골프의 인센티브 중 하나인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해 더 잘 플레이하려는 충동을 제거한다고 언급했다. 우즈는 "그들은 많은 돈을 선불로 받고 몇 가지 이벤트를 하고 54홀을 플레이하고 있다." 며 LIV는 이벤트성 대회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사진=shutterstock

미국 프로야구, 수비 시프트 제한 강화

미국 프로야구가 경기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수비 시프트 금지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비 시프트는 상대 타자의 데이터, 성향 등을 분석해 야수의 위치를 옮기는 수비 전략이다.

13일 '뉴시스' 에 따르면 AP통신은 이날 "마이너리그 로우 싱글A 플로리다 스테이트 리그는 23일 경기부터 내야수들이 2루 뒤에서 수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계획" 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우 싱글A 경기에서는 내야수가 2루 베이스 뒤에 그려진 다이아몬드 모양의 선 안으로 미리 들어와 있을 수 없다.

최근 젊은 팬들이 이탈하고 있는 메이저리그(MLB)는 경기의 재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투구 시한 제한과 베이스 크기 확대, 수비 시프트 금지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마이너리그, 독립리그 등에서 실험하고 효과를 살피고 있다. 공격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이다.

최근 마이너리그 더블A와 싱글A에서는 최소 4명의 수비수가 내야에 있어야 하고, 2루를 기준으로 양쪽에 2명씩 자리잡아야한다는 수비 시프트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MLB 사무국은 해당 제한 규정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판단, 수비 시프트 제한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MLB 사무국은 바뀐 수비 시프트 제한 규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후 MLB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장님,
힘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께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